

## GE와 WH의 片貌

—特許連繫活用の 象徴企業—

美國에서 巨大한 資本 및 科學의 象徴인 이른바 多國籍 企業으로서 제네랄·엘렉트릭(GE)과 웨스팅·하우스(WH)를 礎를 築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그들은 華麗한 企業 經歷을 지니고 있다.

GE는 톰슨·하프톤會社와 에디슨會社가 合併한 것이며 프랫싱工法으로서 에디슨白熱電球의 質을 向上시켰고 交流方式으로 遠距離送電에 活用하는 照明分野의 技術革新에 크게 貢獻했다. 또한 動力部門에서도 GE가 發足함으로써 特許의 組合이 遂行하여졌으며 要員도 많이 確保하였는데 그 代表的인 例가 에켄마이어같은 훌륭한 技術者를 얻은 것이다.

WH는 GE와 交流重電 특히 WH의 多相交流電動機特許와 GE의 單相交流發動機 및 變壓器 등으로 提携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兩社는 나이아가라의 發電工事を 비롯하여 特許紛爭만도 300餘件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結合 즉 特許相互利用協定은 劃期的인 것이었다.

WH는 電球를 製作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하나만의 특허인 텅그스텐·필라멘트를 1902년에 150만달러로 買收한 다음 1914년에 텅그스텐을 線으로 하는 특허를 企業化하였다.

이에 앞서 1913년에는 전유어가 발명하여 얻은 알진등이 전구의 특허를 기업화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둥근 전구는 1929년에 미첼과 하이드가 특허를 받은 無空氣抽出突起型을 기업화하여 獨占體制를 갖추는 한편 外國企業에도 손을 뻗어 系列化에 성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例가 日本의 東芝電氣이다.

한편 GE도 螢光燈을 발명하여 그 事業을 專攻하는 反面, 多國籍 企業으로 成長하였다. 또한 1918년 언더슨이 개발한 高周波送信機의 販賣會社인 어메리카·말코니의 美國內 獨占의 無線通信 企業性을 이용하여 말코니와 排他的 購入條件下에 우선 500만달러어치의 高周波送信기를 發注하려다가 그해에 1次大戰이 終了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海軍으로부터 말코니와의 계약에 制動을 걸었다.

그 理由인즉 말코니는 英國籍을 갖고 있으므로 外國企業에 通信機械의 獨占供給權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말코니와 GE의 商談은 깨지고 美政府는 國內主要電氣通信關係會社인 ATT, GE, WH등 3社 代表者를 모이게한 자리에서 3회사의 關係特許를 전부 모아 새회사를 設立한후 무선관계의 事業을 一切引受하도록 懲憑하

였다. 이에 따라 1920년에 RCA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어메리카·말코니도 吸收하여 전기통신의 專攻대기업으로 發展하였다. 그 대신 GE는 RCA에 대해 設備의 專攻공급권의 하나인 通信기메이커로서 그후 放送機材는 GE 60%, WH 40%의 比率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1920년에 WH가 自社의 라디오放送局을 設置하게 됨을 契機로 各 放送局이 續設되었다. 이어 1929년에는 GE, WH, RCA가 合資하여 NBC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라디오受信機의 需要가 늘었고 RCA는 이에 때를 맞추어 自社와 連繫되어 있는 특허를 一定額의 로열티를 받고 開放하는등 最低技術料制度를 導入하여 終局에는 實質的인 生産配定制를 實現시켰다.

한편 1930년에는 GE와 WH는 그들의 라디오수신기특허와 製造設備의 전부, 그리고 NBC 등에 投資한 放送關係 持株를 RCA에 讓渡함으로써 RCA를 強化시킨다음 新株를 6對4의 비율로 取得하였다. 이때 그들은 獨禁法에 걸렸으나 RCA의 持株를 自社의 株主들에 按配함으로써 法的 抵觸問題는 解決하는 한편 다시 그들은 각각의 특허로서 라디오수신기를 生産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